「경영사학」 제29집 제2호(통권 70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4. 6. 30. pp. 73~92

논문접수일 : 2013년 12월 03일
최종수정일 : 2014년 06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6월 26일

부존재 시장의 역사적 진출사례연구

김 신*

요 약

부존재 시장의 발견에 성공한다는 것 — 신화적인 실재물이 사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 — 은 알려져 있는 시장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글로벌관리능력, 글로벌조직능력, 현지국 바다에 대한 광범한 지식, 그리고 남들이 감히 가지지 못한 관철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가능성을 추구하는 인내심을 가진 자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정적 발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1791년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는 이후 100여 년 간 동해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으로 세계지도와 해도에 존재하였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지도와 해도에서는 동해상에 아르고노트와 울릉도를 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박들은 항해시의 위험에 대비하였다.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 섬의 위치는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3분이었다. 1849년 1월 27일 독도가 발견되고 부터는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동해에 3개의 섬(한국 쪽에 가까운 순으로 아르고노트, 울릉도, 독도)이 존재하였다.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울릉도를 죽도로 지칭하였다가 아르고노트'현존하지 않는 섬'(nicht vorhanden)을 죽도로 불렀고, 1905년 좌표 상으로 '현존하지 않는 섬'을 시마네 현에 편입한 후 죽도로 새로 지명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죽도는 독도에서 11㎞ 떨어져 위치한 현존하지 않는 섬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역사적 가설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지 않는 섬'(nicht vorhanden)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움직임은 세계사적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미지의 섬인 호주에 대한 병합은 경쟁적인 제국에 대하여 힘을 과시하는 전략적인 가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영국 모두 새로 획득한 영토를 재빨리 개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양국의 그러한 병합 동기는 그 영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미래에 가치 있는 곳으로 증명될지도 모를 지역을 적국이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제압하려던 것에 있었다. 우선적으로는 그곳을 어떻게 차지하는가에만 관심을 두면서 후에 가서야 그곳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호주는 경쟁적인 유럽 제국주의 세력국가 사이에 볼모가 된 것이다. 죽도(nicht vorhanden)의 사례도 호주를 둘러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각축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죽도(nicht vorhanden)와 호주의 비교는 단순한 섬의 거대함과 규모로는 비교될 수 없지만 섬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지형적 미래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역사적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주는 영국에 그리고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발견, 부존재, 역사적 가설, 전략적 가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I. 서 론

일본의 죽도(현존하지 않는 섬)편입시도 및 동해표기시도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선을 확대하고자하는 일본의 글로벌전략으로 1905년 영토편입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섬은 사실은 '현존하지 않는 섬'이라는 사실과 1953년 국제수로기구에서 발간된 「대양과 바다의 경계」(1953년, 제3개정판)에 '일본해'라는 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김신, 2002)는 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 새로운 진실을 밝혀낸 사례는 역사적으로 외국에도 있었다.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새로운 시장과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로 진출하였으며, 새로운 거대한 남쪽 대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진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이종현,2011).'알려지지 않은 남쪽 대륙'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붙여진 이름이며,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대부분의 교육받은 유럽인들이 그러한 대륙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보편화된 상상이었다. 왜냐하면 그 대륙이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곳과 같은 위도에 속하고 있는 북반구 대륙의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하기 때문에 그곳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학자들을 추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르코 폴로 이후 유럽인들은 알려지지 않은 남쪽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풍요롭다는 소문에 자극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몇 세기 동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또는 비즈니스나 약탈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모두가 이 알려지지 않은 남쪽 대륙을 발견하여 그 시장을 자기들 제국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는 시도를 펼쳤다.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유럽인들의 적극적인 진출활동으로 동아시아와 호주 대륙의 존재가 서서히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제임스 쿡의 두 번째 탐사가 있고 나서야 마침내 이 거대한 동아시아와 남쪽 대륙에 대한 신화가 종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존재 시장을 찾기 위한 역사적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로서의 독도와 동해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II. 국제경제적 이익과 영토분쟁의 역사적 사례

1. 영토, 영해와 경제적 이익선

18세기의 산업혁명 후 대두 된 제국주의는 끝없는 해외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원자재의 공급처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제국주의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만들었으며 이들은 새로운 경제적이익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는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로 국제적 경쟁력을 얻고, 이를 위하여 보다 저렴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확보하려고 했다. 이들 국가가 수립한 이론이 경제적이익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경제적이익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경선을 넓혀가야 했으며, 그 목표가 된 것이 새로운 대륙이었다.

제국주의국가들은 새로운 경제적이익선의 확대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시장은 새로운 영토 확장경쟁을 일으켰으며, 그 전면에 선 국가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부존재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인 아젠더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2. 국가적 이익과 해양진출

세계사적으로 부정적 발견에 성공한다는 것－신화적인 실재물이 사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대륙 및 섬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다.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네트워크, 해양정보에 대한 광범한 지식,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의사결정력과 힘을 가지고 가능성을 추구하는 인내심을 가진 자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정적 발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1791년 콜넷(Colnett)이 발견한 아르고노트는 이후 100여 년 간 동해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으로 세계지도와 해도에 존재하였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지도와 해도에서는 동해상에 아르고노트와 울릉도를 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박들은 항해시의 위험에 대비하였다.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 섬의 위치는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3분이었다. 아르고노트 섬은 1840년에 간행된 시볼트의 지도첩 「일본전도」에는 아르고노트(다카시마, 존재하지 않는 섬)의 위치가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0분으로, 다줄레(울릉도, 마츠시마)가 북위 37도 25분, 동경 130도 56분의 위치에 각각 표기되어 있다. 1849년 1월 27일 독도가(이진명,1998) 발견되고 부터는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동해에 3개의 섬(한국 쪽에 가까운 순으로 아르고노트, 울릉도, 독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함인 팔라스 호는 1854년 좌표 상으로 아르고노트 섬을 찾았지만 그 좌표에서 아르고노트 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 아르고노트 섬은 세계지도상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현존하지 않는 섬'(nicht vorhanden)으로 기록되며, 세계지도상에서는 점차 사라져 버렸지만 일부 세계지도에는 1911년까지도 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2월 22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해상에 '죽도(竹島)란 이름의 섬이 다시 나타났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의 시마네 현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섬'(북위 37° 9′ 30″, 동경 131° 55′)을 일본 시마네 현 소속으로 편입하고, 1800년대에 '현존하지 않는 섬(nicht vorhanden)'을 표기했었던 'takasima'란 명칭과 비슷한 '죽도(nicht vorhanden)'란 지명으로 표기했다.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죽도'란 지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가 '현존하지 않는 섬'인 아르고노트 섬을 '죽도'라고 지칭하였다가 이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자, 1905년 좌표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섬'을 편입하고 다시 이 섬에 '죽도'란 지명으로 명기하였던 것이다.

18세기 이래 이래 동해상에는 3개의 섬이 세계지도와 해도 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시마네 현에서 편입한 죽도(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 1953년 시마네 현 고시 제352호)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와 「352」호(1953년 6월 19일)에 의한 독도편입의 무효이론과 혼란을 빚고 있는 동해의 부존재한 섬의 실체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I. 원자재 공급 및 판매시장 확대의 역사적 사례

1. 스페인의 역사적 신대륙진출 사례

중세시대에 있어서 팽창주의적인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은 남쪽 대륙의 잠재성 발견에 처음으로 학문적인 것 이상으로 관심을 나타낸 국가는 스페인이었다(국승규2010). 1567년에 리마의 스페인 제독은 남미대륙 서쪽에 위치한 풍요로운 땅의 인디언 전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돈 알바로 드 멘다나를 지휘관으로 하여 두 척의 배를 그곳으로 급파하였다. 돈 알바로는 서쪽으로 2,000마일(3,200km)쯤 항해하여 솔로몬 군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 항해를 통하여 얻어낸 것은 없으며 멘다나가 솔로몬 군도에 식민지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1595년에 재차 그곳을 항해할 때까지 별다른 여정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실수로 산타 크루즈 군도에 닿게 되었지만 그 여정은 재해로 끝나고 말았다. 멘다나는 죽고 정착은 실패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에 멘다나의 키잡이였던 드 키로스가 독자적인 항해를 하여 1606년 5월 1일 거대한 남쪽 대륙이라고 믿으며 스스로 오스트레일리아 델 에스피루토 산토라고 이름 붙인 땅을 발견하였다.

드 키로스는 아메리카로 돌아가고 그의 동업자였던 토레스는 탐험을 계속하여 드 키로스가 이름 붙인 땅이 대륙이 아니라 이미 뉴 허브리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군도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커다란 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레스는 거대한 남쪽 대륙을 발견하기 위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호주 북부 해안 160마일(256km) 안에까지 근접하였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호주 대륙을 발견하려던 기수를 돌려 북쪽으로 항해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호주 대륙을 발견하려던 스페인의 시도는 국제비즈니스에 뜻을 두고 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남쪽에 남아있는 귀중한 신시장과 원자재 공급처를 찾고자하던 스페인의 야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2. 네덜란드의 역사적 신시장 진출사례

비즈니스 외에 종교적으로도 서로 경쟁상대였던 유럽 각국들은 해외진출 경쟁에 불을 붙였다. 여러 면에서 서로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던 국가들이 선취권을 획득하는 제국주의에 골몰하여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유익한 영토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잠재적으로 이익이 되는 영토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반면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영토에 관하여는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써 호주와 네덜란드인과의

접촉에서 호주 본토는 뉴 홀란드, 타스메이니아는 밴 디멘즈 랜드 등으로 이름이 붙여지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그들의 무역 식민지인 바타비아로 항해하는 길에 계속해서 거칠고 적대적인 호주 서부 해안에서 강풍을 만나곤 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대륙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나 항해할 때마다 조금씩 영토지도가 맞추어지고 있었다. 1642년에 이르러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이 우연히 마주치며 알게 된 방대한 대륙에 탐험대를 파견하여 조사를 하게 하였다. 두 번에 걸친 탐험 중 첫 번째는 아벨 얀준 타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다. 11월에 그는 타스메이니아 서부 해안을 탐사하였으며 네델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총독으로서 그의 후원자였던 안토니 벤 디멘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밴 디멘즈 랜드라 명명하였다.

타스만의 여정은 비즈니스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를 실망시켰다. 아무런 무역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남쪽 대륙의 존재는 여전히 불가사의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1644년에 다시 대륙의 북쪽 해안을 탐험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상업적인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2차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타스만은 카펜테리아 만에서 노스웨스트 케이프까지의 1천마일(1,600km) 이상을 호주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덕 하토스 섬까지 내려갔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광경은 한결 같이 황량하고 무시무시하여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네덜란드인들에게는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어떠한 관심을 끌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광활한 호주 대륙의 발견과 관련하여 거의 50년간 지속되었던 네덜란드의 접촉은 불모와 난파선으로 흐트러진 지역에 걸맞게 비즈니스적인 목적과는 대치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늦게 해외 식민지 건설에 나선 영국은 이 새로운 남쪽 대륙의 발견에 흥미를 나타냈다. 빈센트 할로는 1577년에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내놓은 세계일주를 위한 지침서에 따르면, 원래 그가 태평양으로 들어간 것은 알려지지 않은 호주 대륙을 찾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므로 그 땅은 영국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드레이크는 원래의 원정계획을 변경하여 스페인 항해자들의 약탈물을 해적질하는 원정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이 후자의 목적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 후 영국의 태평양 원정은 약탈물 들을 조사하는 여정으로 바뀌었지만, 1586년의 캐밴디쉬와 1593년의 호킨스는 거대한 남쪽 대륙의 발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노력 역시 실패하였으나 1688년에 윌리암 뎀피어가 호주 서부 해안 방문을 이룬 이후에 영국인들은 실제로 호주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3. 영국과 프랑스의 세계시장 경쟁사례

18세기 두 대국 사이에 제국확장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호주 대륙에 관한 관심은 급증하게되었다. 수백 년을 통하여 유럽에서 프랑스, 혹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군이 영국의 전통적인 적대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증오는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과 국제적 경쟁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그 두 나라 사이의 국가적인 적대감의 골은 더 심화되고 있었다. 유럽 열강들이 신세계와 아메리카, 인도뿐만 아니라 서인도제도 등으로 무대를 옮겨가면서 각축을 벌이는 동안 영국인은 자신들의 오랜 적인 프랑스인들에 의해 제한받고 있으며 그들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노혜경 · 노태협,2010). 영국과 프랑스간의 전쟁은 17세기와 18세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며, 휴전기간은 양쪽에 의해 단순한 정전으로만 받아들여졌고 언제든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전쟁은 재개되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전쟁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영국의 호주정착이다. 1756년 초에 프랑스가 영국령 미노르카를 공격하면서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7년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 이전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과는 다르게 그 전쟁은 '근대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인 전쟁이기도 하였다. 전쟁의 격전지는 유럽과 아메리카, 인도, 서인도제도, 필리핀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 전쟁은 결과적으로 영국의 승리를 가져왔으며, 전략적인 힘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영국편으로 기울게 되었다. 프랑스는 북미 대륙의 대부분과 인도의 상당 부분을 영국에게 빼앗겼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이 유럽에서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기타 강국들에 비할 수 없는 해상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프랑스의 패배는 완전한 것이어서 한동안 영국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프랑스에 대하여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자유롭게 관심을 태평양으로 그리고 호주 대륙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존 칼렌더의 호주 대륙 식민지화에 대한 제안은 7년 전쟁 이후에 나타났다. 1766년에 칼렌더는 태평양을 식민지화하는 데 영국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적으로 뉴 브리튼 섬에 정착을 하고 다음으로 그 근처의 방대한 대륙을 발견,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각적인 이익이나 초기의 성공이 없다는 것이 사업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주식회사의 모험보다는 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100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가지고 공을 들여야 한다. 이 일은 1년, 혹은 한 사람

의 생애에 걸쳐 이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강력한 국가는 하루하루가 아닌 세기를 놓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단지 계획만을 영원한 것으로 하여야 했다.

그러나 패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태평양 지역을 아무런 투쟁없이 그대로 영국에게 넘겨주지는 않으려고 하였다. 드 브로쓰와 칼렌드의 책은 양국에서 모두 폭넓게 읽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관심을 남쪽 바다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프랑스는 부강비에나 더빌, 마리옹 듀프렌느, 쌍 타루앙, 라 페루스와 같은 유명한 선장들을 계속하여 탐험대로 파견하였으며 영국은 앤슨, 바이론, 카터렛, 왈리스, 그리고 유명한 제임스 쿡 등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1770년 쿡 선장이 엔데버호를 타고 나간 첫 번째 여정에서 마침내 호주의 동해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즉시 조지 3세를 대신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이름 하에 그 땅을 영국에 합병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그렇게 멀리 처져 있지는 않았다. 1772년에 탐험가 쌍 타루앙은 그로 방트르 호를 타고 나가 호주의 서부해안인 터틀 만에 상륙하여 프랑스 국왕인 루이 16세의 이름으로 그 영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IV. 남쪽 부존재대륙의 진출사례

1. 황금시장의 확인

유럽의 태평양탐험가들은 마르코 폴로가 로카치라고 불렀던 먼 남쪽에 있는 엘도라도의 이야기를 결코 잊지 않았다. 마르코 폴로는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금이 많아서 만일 그곳이 보다 가까이 있었더라면 쿠빌라이 칸이 즉시 그곳을 정복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카대륙이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지자, 서양의 지도제작자들은 텅 비어 버린 지구상의 남극의 자리를 메울 공상에 빠져들었다. 유럽인들의 일부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발견은 그들이 찾고자 하는 대륙을 다만 더 멀리 남쪽으로 밀어 놓는 데 그쳤다.

아벨 타스만(Abel Janszoon Tasman, 1603~1659)은 네델란드의 항해사이다. 유럽인으로는 최초로 타스메니아, 뉴질란드, 통가, 피지를 방문하였다.

1642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총독이었던 앤톤 밴 디먼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를 탐험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타스만은 이 항해와 그 다음의 항해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일주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신화적인 남쪽대륙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2. 동인도회사의 발전이론

영국 동인도회사에 근무하던 스코틀랜드인 지리학자는 가상의 남쪽대륙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일찍이 없었던 가장 풍요하고 자세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알렉산더 달림플(Alexander Dalrymple, 1737~1808)은 바다와 조류의 해도를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었고, 1795년에 해군 최초의 수로측량사가 되었다.

그의 논문 「1764년 이전에 남태평양에서 행하여진 여러 발견에 관한 설명」은 "과거의 발견에 있어서의 성질의 공통성과 추론"을 논하며 광대한 남쪽대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 남쪽대륙은 "북쪽에 있는 육지와 균형되게 하기 위하여 적도의 남쪽에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구의 운동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시킨다"는 것이었다.

적도에서 북위 50도에는 거의 같은 크기의 육지와 바다의 표면이 있지만, 적도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그쪽에서 발견되는 육지는 고작 바다표면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최남단 태평양을 항해한 과거의 탐험가들에 의하면 그곳에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은 그 근처에 큰 육지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광대한 대륙이 남쪽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적도에서 남쪽으로 50도에 이르는 거의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틀림없이 "동쪽에 있는 터키에서부터 중국의 끝에 이르기까지의 문명된 모든 아시아의 지역보다 더 큰" 육지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무렵 금성의 태양통과가 1769년 7월 3일에 있을 것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왔다. 이 현상을 지구의 여러 지점에서 관찰하면 지구와 태양간의 거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런던의 왕립학회는 타히티섬에 원정대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영국정부는 이 원정대가 아직 탐험되지 않은 태평양의 최남단 가장자리도 탐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남쪽대륙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만일 그 육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원정대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를 부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시장의 확인

영국 해군본부가 쿡을 타히티섬으로 가는 원정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 쿡은 그 당시 하사관이었지만 그는 전투와 거친 바다에서 능력을 보여 주었고, 또 그는 변하기 쉬운 해안의 유능한 관측자였고, 그리고 천문학적 현상에 대한 관측자로서의 능력과 호기심을 모두 겸비하고 있었다.

쿡의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선박의 선택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해군본부는 쿡의 요청에 따라서 쿡이 북해에서 그의 견습선원 시절에 그가 탔던 종류와 똑같은 캣트형(cat built : 범선으로 재래식의 선수상이 없고, 폭이 넓고 땅딸막한 선수를 가지고 선미는 수직으로 된 형)의 '위트비 컬리어선'의 건조를 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왕립학회는 타히티 섬에서의 관측에 필요한 과학기구들을 공급하였지만 배에는 아직 크로노미터는 없었다. 영국 해군본부는 경도를 발견하는 항해용 계기를 발명한 존 해리슨에게는 1765년에 상을 주었지만, 이번의 원정 선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경도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쿡은 비록 그리니치관측소로부터 온 한 사람의 천문학자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복잡한 달 관측에 의하여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쿡이 조심스럽게 출항 전에 가져온 도표와 초기탐험가들의 보고자료 등의 도움을 받아서 행한 그들의 관측은 놀랄 만큼 정확하였다.

엔디보우호는 1768년 8월 26일에 플리머스를 출항하였는데 94명의 선원과, 이 밖에 조지프 뱅크스의 요청으로 '8명의 수행원과 그들의 짐들'이 추가되었다. 8명의 수행원으로는 솔랜더 외에 1명의 사무원, 2명의 식물학자 겸 식물사생화가, 뱅크스가에서 보낸 2명의 하인, 그리고 2명의 흑인노예, 이밖에 그들의 그림도구, 어망, 원주민들에게 선물로 줄 장신구, 표본을 보존하기 위한 화학약품과 용기, 그리고 두 마리의 큰 사냥개 등이 있었다. 좋은 날씨에 남서쪽으로 항해를 하며, 마데이라섬을 지나고 케이프혼을 돌아 리오 데 자네이로를 거쳐 쿡은 1769년 4월 10일에 타히티섬에 도착하였다. 6월 3일에 있을 관측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다. 천체관측이 끝나자 쿡은 남쪽대륙을 찾고, 될 수 있는 한 그 대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비밀임무를 달성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부정적 발견에 성공한다는 것 — 신화적인 실재물이 사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 — 은 알려져 있는 대륙 및 섬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콜럼버스가 찾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서쪽항로는 잘 알려진 목적지로 가는 길이었다. 콜럼버스가 실패한 것은 뜻밖의 대륙이 그의 앞에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콜럼버스는 아시아로 가는 우회 서부항로를 실제로 열어 놓았다.

'대남쪽 대륙'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가 전설적으로 되어 있는 이상 탐험가는 그것이 결코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기 위하여서는, 그는 그것이 있음직한 모든 장소를 샅샅이 뒤지고 사실상 지구를 일주하는 항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항해에 있어서 철저한 개척정신, 선박조종술, 지도제작법, 바다를 다루는 법, 원주민과의 관계, 바다에서의 과학적응용 등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세계지도를 변경시킨 인물이었다. 역사상 가장 글로벌한 능력을 갖춘 CEO였던 셈이었다.

4. 해양CEO시대의 개막

1) 글로벌 리더십과 부정적 발견자

선장 제임스 쿡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정력, 조직능력, 해도와 바다에 대한 광범한 지식, 그리고 남들이 감히 가지지 못한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인내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정적 발견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다.

이 웅대하고 어려운 탐험은 타히티 섬에서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쿡 이전에 이 지역을 탐험한 탐험가들은 항상 순풍을 타고 서쪽과 서북쪽으로 항해하였다. 그러나 쿡은 남위 40도까지 상상 속의 대륙을 찾아서 남쪽과 남서쪽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 지점에서도 육지를 찾지 못하였고,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서 뉴질랜드를 만났고, 다시 6개월 동안 2천 4백 마일에 이르는 북쪽과 남쪽 섬들의 해안을 항해하면서 해도를 작성하였다.

부수적으로 그는 이 해역에 있는 육지는 모두 섬이고, 어떠한 '남쪽대륙'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첫 단계에 지나지 않았으나, 달림플의 이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자그마한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였다.

쿡은 그가 온 길을 따라 동쪽으로 해서 귀국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희망봉을 돌아서 서쪽으로 해서 귀국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했다. 1770년 3월말이었고, 남쪽의 여름이 끝나 가고 있었으며, 남극의 위도를 따라 동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그러므로 그는 서쪽 길을 택하여 뉴 홀랜드(오스트레일리아)의 동해안을 탐험하고, 동인도제도로 가서 희망봉을 돌아 귀국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초의 항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쪽대륙의 전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은 1772년부터 1775년에 걸쳐 레졸루션호를 타고 행한 쿡의 두 번째 항해였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판단으로 쿡은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편이 강한 편서풍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 방법을 취하면 남위 40도 이남으로 갈 수가 있다. 해군성은 쿡의 의견에 찬성하여 케이프타운에서 남으로 향해 가능한 남쪽의 위도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일주하도록 지시했다. 쿡은 지시대로 항해하여 빙하에 시달렸지만 대부분의 항정을 60도 가까이를 따라 남극권을 세 번이나 통과했다.

그는 항해보고서에서 "이 항해의 목적은 모든 점에서 충분히 탐색되어 과거 2세기 동안에 걸쳐 해상세력을 유혹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 지리학자의 관심을 끌어온 남쪽대륙의 탐구에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극지부근에 대륙이나 거대한 육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쪽대륙 중에서도 빙하에 갇힌 무인의 남극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탐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남쪽대륙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쿡의 항해는 18세기 유럽의 목적에 맞는 위도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다.

2) 신시장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경쟁

당시 영국의 적국들은 영국의 목표를 좌절시키거나 자신들이 선수를 치기 위한 여정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린 제임스 쿡 선장을 대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상대방들의 경계심을 낮추어 효과적으로 관심을 금성의 통과에 관련된 과학적인 사건에만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물론 쿡은 타히티에서 천문학자들의 관측이 끝나면 남쪽 대륙을 탐험, 점령하라는 밀령을 받고 있었다. 쿡은 이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놓았다. 왜냐하면 기록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코모더 앤슨이 태평양에서의 영토 점유에 관련하여 구두로 은밀한 지시를 받았던 경험을 통해 터득한 바였기 때문이다. 1770년에 쿡이 뉴 사우스 웰즈를 합병한 초기의 상황에서 영국인들은 프랑스와 스페인, 심지어는 동맹국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까지도 압도하려 하였다.

스페인은 쿡의 활동에 경고를 표시하였으며, 프랑스는 이미 남태평양에 일련의 탐험대를 보내고 있었다. 1768년 쿡이 처음 탐험을 떠났던 같은 해 프랑스의 탐험대는 부강비에의 지휘 아래 태평양을 향해 떠났으며 쿡보다 조금 늦게 타이티 섬에 도착하였다. 스페인 역시 영국이 태평양에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1770년에 영국을 저지하고 남부 대륙이 발견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태평양으로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1772년에 영국인의 정착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페인은 재차 원정대를 보냈으며, 1774년에 다시 남미로부터 장도에 오른 스페인은

타이티를 탐험하여 그곳을 스페인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동맹국이던 포르투갈까지도 금성의 관찰이 엔데버 호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쿡이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하여 머물렀던 리오의 총독은 천문학적인 관찰이 그들의 항해 목적이라는 것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영국이 남태평양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 틀림없다는 자신의 믿음을 피력하였다.

쿡은 뉴질랜드에서는 아마를 발견하고 노폭 섬의 두 번째 항해에서는 소나무를 발견하고, 다음 20년간 전략상 동쪽을 주시하던 관찰자들의 마음에 뉴 홀랜드의 합병이 가진 또 다른 가치를 첨가시켜 주었다. 그러나 쿡이나 쌍타루앙에게나 그러한 합병이 존경하는 왕실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유용한 영토를 얻었다 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적들을 제압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선원들도 자신이 본 호주 땅에 강한 감동을 받지 못하였거니와 쿡 역시 뉴 사우스 웰즈의 경제적 유용성에 열광적이지 못하였다.

V. 동해진입의 실증적 검증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의 해양진출로를 모색하는 강대국들은 새로운 루트를 한국근해에서 찾고 있었다. 이와같은 진출동기는 한국해역에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 가설 1 : 콜넷이 발견한 가상의 섬은 실재로 존재하였는가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는 동해에서 '현존하지 않는 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791년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는 이후 100여 년 간 동해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으로 세계지도와 해도에 존재하였다. 1911년 경 까지 세계지도와 해도에서는 동해상에 3개의 섬을 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박들은 항해시의 위험에 대비하였다.

1791년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 섬의 위치는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3분이었다. 1811년 애로 스미스와 1815년 영국의 톰슨(John Tomson)의 "Corea and Japan"지도에도 아르고노트와 다줄레가 표시되어 있다(김 신,2013). 아르고노트 섬은 1840년 간행된 시볼트의 지도첩 「일본전도」에는 아르고노트(다카시마, 존재하지 않는 섬)의 위치가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0분과 다줄레(울릉도, 마츠시마)가 북

위 37도 25분, 동경 130도 56분의 위치에 각각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1849년 1월 27일 독도가 발견되고 부터는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동해에 3개의 섬(한국 쪽에서 가까운 순으로 아르고노트, 울릉도, 독도)이 존재하였다.

프랑스지도에서 아르고노트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도는 1820년에 발간된 브뤼에(Brue)의 「총제국 및 일본전도」이다. 그 후 1832년 라피(Lapie), 1839년 모냉(Monin), 1840년 뒤프르(Dufour) 등이 제작한 동양지도에도 아르고노트와 다줄레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1852년 프랑스의 코르벳함 카프리시유즈 호가 두 번에 걸쳐 아르고노트(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3분)의 위치를 지나 갔으나 섬의 존재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군함인 팔라스 호는 1854년 좌표 상으로 아르고노트 섬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다. 1859년에 영국의 악테온 호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악테온 호도 아르고노트 섬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섬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 이후 아르고노트 섬은 세계지도상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현존하지 않는 섬'(nicht vorhanden)으로 기록되며, 세계지도상에서는 점차 사라져 버렸지만 일부 세계지도에는 1911년까지도 표기하고 있었다.

2. 가설 2 : 동해의 3섬 이론은 어떤 의미가 있나

1700년대 유럽의 함대들은 식민지 개척을 위하여 전 세계로 함대를 파견했고, 이들 함대들은 동해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동해해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요충지였다. 이들 국가들에게는 국제전략적 환경에서 동해지역에 있는 섬들은 항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안전한 항행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목표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함대들은 동해상에서 경쟁적으로 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도와 해도에 기록하면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위치측정과 더불어 섬의 명칭을 명기하면서 동해에는 3개의 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시볼트는 1840년 한국 쪽에 아르고노트(Takasima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0분)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다줄레(Matsusima 북위 37도 25분, 동경 130도 56분)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아르고노트에 'Takashima'란 지명을 병기하였다.

그리고 1849년 1월 27일 독도가 발견되고 부터는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동해에 3개의 섬(한국 쪽에 가까운 순으로 아르고노트, 울릉도, 독도)이 존재하였다.

1851년 발간한 프랑스 해도국의 「태평양전도」(해도번호 1264)에 takasima, matsusima(울릉도), Rocher Du Liancourt(독도)가 표기되었다.

1859년 영국의 와일드(James Wyld)가 제작한 해도인 「일본열도」에도 아르고노트 섬이 표시되어 있다. 영국해군의 「중국수로지」 1861년 제3판에는 아르고노트(Tako sima), 울릉도(Matusima), Liancourt(독도)가 한국의 동해에 표기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해군함정이 아르고노트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것이다(김신, 2013).

3. 가설 3 : 죽도(竹島)란 이름을 가진 섬은 하나가 아니다

천상건삼(川上健三,1966)에 의하면 동해상에 한 때는 아르고노트, 다쥴레(울릉도), 리앙쿠르(독도, 호네트)라는 3개의 섬이 표기되어 있는 구미 계(페리제독 1856년, 스탠포드 1879년 등)의 지도가 출현하게 되었다.

1872년의 피터먼 고타(A. Peterman Gotha)의 “China Korea and Japan”의 지도나 1880년의 J. Rittau 편찬의 “Topographische Karte von Japan” 등의 지도에서는 아르고노트란 이름은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다쥴레(울릉도)와 리앙쿠르(독도) 두 섬만 남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시마네 현 편입이 있던 1905년과 1911년에 발행된 일부 세계지도에는 여전히 3개의 섬이 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계통의 지리적 지식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상당히 후년(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섬 이름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섬이름의 불명확성은 이후 독도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의 죽도(현존하지 않는 섬)의 편입을 시도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VI. 결 론

본 연구의 가설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18세기에 촉발된 제국주의 해외진출은 새로운 영토의 소유와 새로운 지명의 명명을 촉발시켰다. 부존재 대륙을 찾기 위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각축은 남태평양에서 시작하여 19세기에 와서는 동해해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동해해역에서 경쟁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영토발견의 시도로 아르고노트가 발견되었지만, 아르고노트란 가상의 섬은 해도와 지도상에만 존재하였다.

1791년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는 이후 100여 년 간 동해에 있는 한국에서 가

장 가까운 섬으로 세계지도와 해도에 존재하였다. 러시아의 군함인 팔라스 호는 1854년 좌표 상으로 아르고노트 섬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다. 1859년에 영국의 악테온 호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악테온 호도 아르고노트 섬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섬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다. 프랑스 등 많은 탐사대가 이 좌표에 섬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계해도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일부 지도에는 20세기 초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1791년 영국해군의 착오로 이 가공의 섬이 지도와 해도에 오르게 된 점을 영국해군은 명예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

셋째, 동해상에는 한때 3개의 섬이 해도상에 존재하였다. 프랑스 해군성 지도국은 1851년 발간한 「태평양 전도」(해도번호 1264)에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기했다. 동해에는 한국에서 가까운 순으로 '아르고노트(다카시마)', '울릉도(다줄레)', '독도(리앙쿠르 바위섬, Rocher du Liancourt)이다. 여기서 기록된 섬 중 아르고노트(Takasima)는 '현존하지 않는 섬'이다.

넷째, 죽도(竹島)란 이름을 가진 섬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킨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울릉도를 죽도로 지칭하였다가 아르고노트(nicht vorhanden)를 죽도로 불렀고, 1905년 좌표 상으로 '현존하지 않는 섬'을 시마네 현에 편입한 후 죽도로 새로 지명을 만들었던 것이다.

다섯째, 이와 같은 결론은 역사적 가설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움직임은 세계사적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미지의 섬인 호주에 대한 병합은 경쟁적인 제국에 대하여 힘을 과시하는 전략적인 가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영국 모두 새로 획득한 영토를 재빨리 개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양국의 그러한 병합 동기는 그 영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미래에 가치 있는 곳으로 증명될지도 모를 지역을 적국이 차지하려 는 것을 제압하려던 것에 있었다. 우선적으로는 그곳을 어떻게 차지하는 가에만 관심을 두면서 후에 가서야 그곳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호주는 경쟁적인 유럽 제국주의 세력국가 사이에 볼모가 된 것이다.

그 당시 영국은 다른 곳에 정신을 쏟고 있었다. 1776년부터 1783년까지 영국은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식민주의자들과의 싸움에 발이 묶여 있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곧 미국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하였고 그들의 적대감은 이미 7년 전쟁 기간에도 나타났듯이 세계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또한 동양과의 무역확대와 유지는 재건계획의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영국은 또다시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와 대결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1783년에 체결된 베르사이유 조약은 대서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함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평화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64척의 전함의 장비를 해체하여 상인이 운영하는 새로운 프랑스 회사에 임대하였다. 이러한 배들은 교묘하게 조약을 위반하지 않고 동쪽으로 항해할 수는 있었지만 양쪽 모두 유사시에 그 배들을 다시 원래의 목적인 전함으로 만드는 일이 얼 마나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동쪽에서의 그러한 위협을 가하며 더불어 프랑스는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와 결탁하여 발틱해 연안에서 들여오는 아마와 목재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태롭게 하였다. 1786년에 러시아 상인들은 캐더린 대제의 허락하에 발틱해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마를 사들여 영국 시장을 독점하였다. 20세기의 군사력이 기름과 강철에 달려 있듯이 18세기에 있어 아마의 공급은 해상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미 영국 선박은 미국 독립전쟁 수행시 인도양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왜냐하면 만성적인 아마 공급 부족이 전쟁터에서 파손된 전함을 수리하고 다시 건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786년 아마가 대풍작이 되면서 러시아 상인들은 값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의 위기는 곧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20세기의 석유처럼 아마나 목재의 안전한 공급에 대한 위협을 잊지 않았다.

죽도(현존하지 않는 섬)의 사례도 호주를 둘러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각축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죽도(현존하지 않는 섬)와 호주의 비교는 단순한 섬의 거대함과 규모로는 비교될 수 없지만 섬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지형적 미래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호주모델과 죽도(현존하지 않는 섬)모델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에서도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주는 영국에 그리고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1945년 세계 제2차대전 종전과 함께 독립되었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의 한계는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국승규, 2010, 서양의 중세후기 근대의식 성립과 조선후기 실학사상성립의 시대적 배경 영 관한 비교연구,「경영사학」, 제25집 제4호, 46-47.

김석현, 2007,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국제법적 효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 신, 2003, GPS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고시에 관한 연구, 「인터넷비즈니스연구」, 제14권 1호, 149-164.

김 신, 2005, 「해양탐험가」, 지영사

김 신, 2013, 「독도학술탐사보고서」, 피앤씨미디어.

김 신, 2002, 동해와 국제수로기구, 두남, 93-94.

노혜경 · 노태협, 2010, 경상과 송상의 상거래 유통망에 관한 비교연구,「경영사학」, 제25집 제2호, 34.

이종현, 2011, 한국 소비재산업에서 근대적 대기업의 등장에 대한 경영사적고찰,「경영사학」, 제27집 제3호, 44.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도서출판 삼인, 45-72.

川上健三, 『竹島の 歷史地理的硏究』(1966년,古今書院),26-27.

Badger, G., 1988, *The Explorers of the Pacific*, Kenthurst, 32-38.

Beaglehole, J. C., 1966, *The Exploration of the Pacific*, London.

Biggar, H. P., 1911, *The Precursors of Jacques Cartier*, 1494-1534, Ottawa.

Bonington, C., 1981, *Quest for Adventure*, London.

Cameron, I., 1970, *To the Farthest Ends of the Earth: the History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London, 76-79.

Cranfield, L., 1976, *The Challengers : British and Commonwealth Adventure since 1945*, London.

Daniel J. Boorstin, 1983, *The Discoverers*, Random House, 85-94.

Day, A. E., 1980, *Discovery and Exploration : A Reference Handbook. The Old World*, London.

Delpar, H. (ed.), 1980, *The Discoverers:An Encyclopedia of Explorers and Exploration*, New York.

FernáNdez - Armesto, F., 1991,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 London.

Gavet - Imbert, M. (ed.), 1991, *The Guinness Book of Explorers and Exploration,* Enfield.

Goodman, E., 1972, *The Explorers of South America*, New York.

Hemming, J. M., 1970, *The Conquest of the Incas*, London.
Herbert, W., 1987, *The Noose of Laurels: The Discovery of the North Pole,* London.
Hopkirk, P., 1982, *Trespassers on the Roof of the World*, London.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29,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First Supplementary International Conferance*, Monaco, 9-20 April 1929, 33-37.
Kirwan, A. L. P., 1959, *The White Road:A Survey of Polar Exploration*, London.
Middleton, D., 1965, *Victorian Lady Travellers, London.*
Newby, E., 1975, *The World Atlas of Exploration*, London.
Noyce, W., 1958, *Springs of Adventure*, London.
Parry, J. H., 1964, *The Discovery of the Sea*, London, 87-92.
Pennington, P., 1979, T*he Great Explorers*, London.
Peter Morter, Neil Grant, 1992, *The Great Atlas of Discovery*, London.
Reid, A., 1980, *Discovery and Exploration:A Concise History*, London.
Riverain, J., 1996, *Concise Encyclopedia of Explorations*, Glasgow and Chicago.
Severin, T., 1973, *The African Adventure*, London.
Tourtellot, J. B. (ed.), 1987, *Into The Unknown*, Washington DC.
Waldman, C., and WEXLER, A., 1992, *Who Was Who in World Exploration*, New York.
Wapp, P.(ed.), 1983, *The Travellers' Dictionary of Quotations*, London.

A Historical Study on the Discovery of Nonexistence

Shin Kim*

Abstract

Achieving success in the discovery of something that is nonexistent, i.e., verifying that a mythical real entity does not exist in reality, has been a task much more difficult and arduous than discovering a target entity that is known. Armed with tireless energy, organizational skills, a broad knowledge of nautical charts and the sea, and the courage and strength of pursuit that no others even dare having, those who tenaciously pursue the possibilities are the ones that are truly qualified to be called the world's greatest discoverers of the nonexistent.

The Argonaut discovered by Collet in 1791 existed in the world maps and nautical charts as an island in the East Sea in close proximity to Korea for over 100 years. On the world maps and nautical charts of the 18th century through the 20th century, the Argonaute Island and Ulleung-do were described in the East Sea and, based on these, ocean liner ships used to prepare for the dangers during voyage.

The location of the Argonaut Island discovered by Collet (of Great Britain) was 37° 52′ north latitude and 129° 53′ east longitude. On the world maps created in the west since the discovery of Dok-do on January 27, 1849, three islands (in order nearest to Korea: Argonaut, Ulleung-do, Dok-do) existed in the East Sea. In Japan, Ulleung-do was initially referred to as Takeshima and then the Argonaut the "Nonexistent Island" (nicht vorhanden) was referred to as Takeshima; for which, upon incorporating the "Nonexistent Island" into the Shimane Prefecture, the new geographical name of Takeshima was created. In addition, Takeshima is a nonexistent island located 11 km from Dok-do.

It can be ascertained that such a historical conclusion is related to a historical hypothesis as well. The movements made by Japan, Russia, France and Great Britain surrounding Takeshima(nicht vorhanden) can also be found in cases in the world history. Despite the fact that the annexation of Australia, an uncharted island then, displayed a strategic value for showing off prowess to the competing empires, neither France nor Great Britain gave off any signs of quickly developing and utilizing their newly acquired territory. Rather than asserting that such annexation motive of the two nations lied in the two nations' efforts to find intrinsic values in the territory, it should be stated that the nations were trying to suppress their enemy nations from taking a territory that may prove to be valuable in the future. First of all, in the course of examining what can be gained from a territory in the future, whilst focusing the attention only on how to acquire such territory, Australia became a hostage between the competing European imperialist powers. It can be argu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case of Takeshima(nicht vorhanden) and the competition among Great Britain, France and Spain surrounding Australia. Albeit that Takeshima(nicht vorhanden) and Australia cannot be compared in terms of the enormity and scale of the two as simple islands, the difference becomes much, much less with respect to the strategic and geographical value of these two islands. As can be seen in the historical results, Australia by Great Britain and Chosun by Japan, the annexations have taken place.

〈Key words〉 discovery, nonexistent, historical hypothesis, strategic value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